



서울대 Y교수, 녹용 비하 발언 사과

- 한겨레 신문 기고문 통해 녹용 비하, 언론 모니터링 필요성 부각 -

한겨레신문 8월31일자 <덜먹어야 잘산다>라는 코너를 통해 녹용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기고했던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교 Y교수가 본회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Y교수는 한겨레신문 기고를 통해 녹용을 웅담, 곰발바닥 등의 혐오식품과 비교하며 먹어도 배만 나올 뿐 별다른 효과는 없는 것처럼 표현해 양육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Y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몸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먹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녹용, 웅담, 곰발바닥...”이라며 녹용을 비하하는 한편, “~이렇게 좋은 음식을 거의 독점하는 국민이 평균수명 등 각종 건강지표에는 수많은 나라에 뒤지고 있다면...”이라고 표현, 녹용을 먹어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처럼 표현했다. 또 “~건강식품은 우리 몸에 뱃살만 더할뿐...”, “보양식은 비만식”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보양식이 건강에 오히려 역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에 대해 본회는 Y교수에게 전화와 공문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 녹용을 혐오식품으로 오인토록 표기한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 △ 녹용을 먹은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지표를 조사한 바가 있는지, 또 녹용을 먹어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과학적 근거 제시 △ 녹용을 먹으면 뱃살이 나온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본회는 이에 대한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 비하한 발언에 대한 정중한 사과 및 피해 보상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Y교수는 “일부 표현이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만 녹용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양육인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또한 Y교수는 현재 수행중인 업무가 국내 농축산업쪽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기회가 닿으면 국산 녹용을 홍보하는데에도 일조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언론매체 및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슴지기’라는 필명을 사용한 한 양육인은 “언론매체 등을 양육인 스스로 모니터링, 녹용에 대한 부적절한 내용이 있으면 즉시 협회에 알려 대응책이 강구되도록 하는 주인 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방치한 채 우리 양육업이 생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산 녹용을 폄하하는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양평양육인’이라고 밝힌 양육인도 “저명인사들이 무심코 내뱉는 발언이 이해 당사자들에게 고통과 피해로 돌아온다”며 “재발방지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회에서 항상 공부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갖아줄 것”을 주문했다. **민국양육**